나눔의 소공동체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2011년 9월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471장)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18,21-35)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 18,21-35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반대 방향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 않고 그냥 노를 저어 나갔다. 왜냐하면 맞은편의 배도 이쪽의 배를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노를 저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두 배가 너무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본의 아니게 충돌하게 되었다. 물론 상대방의 배도 부숴지고 이쪽의 배도 크게 파손을 당했다. 배를 젓던 사공이 정신을 가다듬고 상대방의 배를 살펴보니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휘두르며 상대방을 때려눕힐 것 같이 분을 품었던 사공은 허공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고 말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빈 배와 부딪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기 때문이다. 만일 그 배에 누군가 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서로 얼굴을 붉히며 "야! 너 눈이 있냐 없냐?"라던지, "너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거야?" 하면서 주먹다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저 쪽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사공은 울분도 참고 이성도 잃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촌스런 이야기이지만 대인관계를 아름답게 엮어가는 매우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 즉 "이웃과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다. 빈 배를 향하여 욕하는 자가 없고 빈 배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자가 없듯이 마음을 비운 사람을 향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못해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의 보화를 내던지고 냉담의 길을 걷는 경우도 가끔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또 나를 비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위에 섰을 때 비로소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된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자로서 활동을 하시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어떤 자매와의 사소한 다툼으로 신앙생활에 장애가 생기게 되었다. 바로 그 장애는 "나와 다툰 그 자매가 먼저 와서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완고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뜻대로 되는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일에 자신감이 사라졌다. 사목자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자매에게 자신을 비우고 먼저 찾아가 용서할 것을 권했다.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망설였다. 하지만 며칠 뒤 용기를 내어 그 자매를 찾아가 진심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청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바로 그 상대방 자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청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한 말이 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다.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나를 비우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비움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수원교구 9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신앙을 위해 순교하신 한국 순교자의 얼을 본받아 우리도 신심 깊은 신앙 공동체를 만듭시다.

※ 8월 31일(수)부터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성경공부가 시작됩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10시와 오후 7시30분에 시작하는 여정 성경공부 반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창세기 **4,1-9,29**

◈ 성경 퀴즈

***창세기 4.1-4,26 까지 읽고 (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으시오.**

1. 아벨은 ( )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부치는 ( )가 되었다.
2. 카인은 ( )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 떼 가운데( )들과 그 ( )을 바쳤다.
3.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시오. (, ,)

***창세기 6,9-9,29 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 노아는 당대에 ( )이었다. 노아는 ( )과 함께 살았다.
5.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나무의 종류는 무엇인가?
6.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을 열거하시오. (, ,)
7.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놈과 암놈으로 ( ),
   부정한 짐승은 수놈과 암놈으로 ( )데려가거라.
8. 땅에 (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9. 방주가 내려앉은 산 이름은 무엇인가?
10. 홍수가 그친 후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 내보낸 두 종류의 새 이름은 무엇인가?
11.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가 처음으로 한 것은? (창세 8,20)
12.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을 읽고 답하시오.

이제 내가 ( )와 너희 뒤에 오는 ( )들과 내 ( )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 )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 )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 )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 )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도전 문제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서의 주된 핵심 내용은 '계약'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주신 계약 외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또 다른 계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라고 노아의 됨됨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하느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짧게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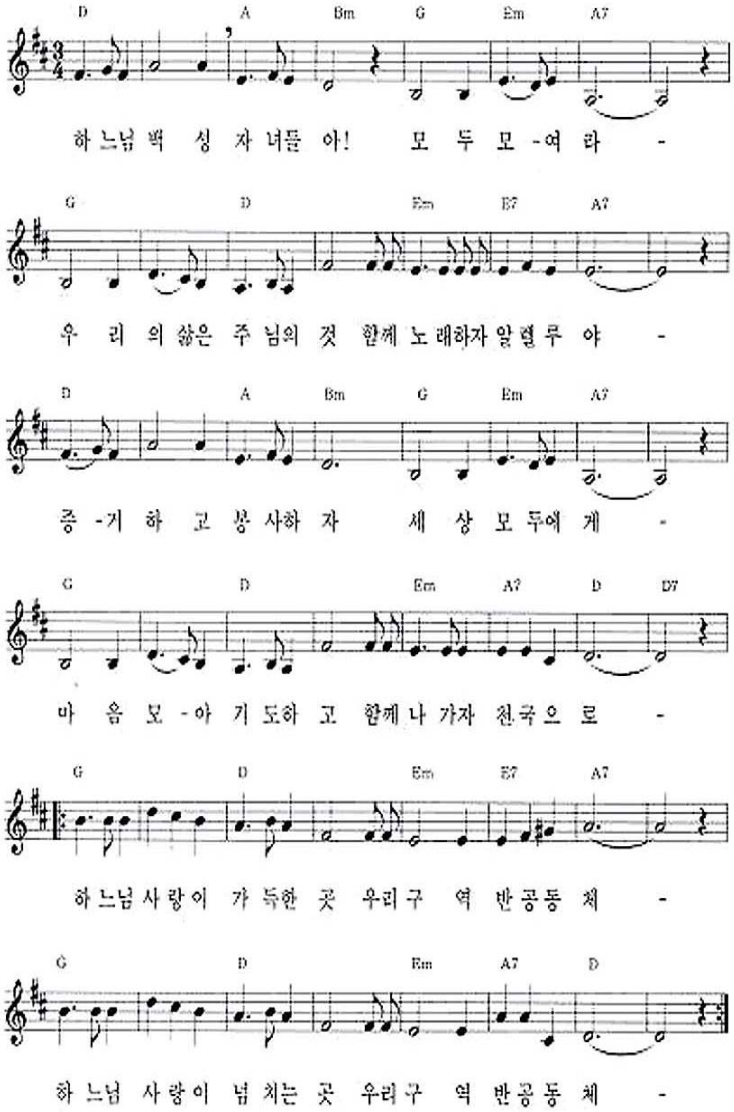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